

장원석·박일광 작가 2인전 'UBUNTU'...내달 1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자연이 선사하는 생명력 판화로...총 40여점 선배



장원석작 'Reinterpret-박생연'

동양의 절경을 담은 고화(古畵), 소박한 숲 속 이야기... 현대판화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장원석·박일광 작가 2인전 'UBUNTU'가 다음달 1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상이한 매력을 지닌 두 작가가 다양한 판화기법으로 제작한 작품 4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전시 주제인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남부 반투족의 언어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다.

장원석 작가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수직으로 낙하하는 박연폭포를 담은 '박생연' 등 조선시대 산수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화면 구성은 산수화 먹의 농담과 필치 등을 단색으로 처리해 판화의 모노크롬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한 장의 판을 계속 깎아내며 그 과정을 종이에 찍어내는 소멸판법을 이용해 조각도로 섬세한 터치를 새겨 넣으며, 선과 면의 교차로 통해 현대판



박일광작 '몽땅털어 프로포즈'

산수화를 새롭게 펼쳐낸다.

박일광 작가의 작품 속에는 숲길 두 걸음 만나는 자연과 동물들이 담겨있다. 작가는 판화의 모노타이프 기법과 한국화 전통 채색기법을 접목해 일상의 순간과 잘나의 장면을 작품으로 제작한다.

모노타이프 기법은 판에 그린 이미지를 압력을 가한 후 판화지에 찍어내는 표현기법이다. 또한 마블링을 이용해 몽환적이면서 신비로운 효과를 통해 꿈속과 추억을 오가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작가는 자신만의 판화 형식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판화만의 고유한 매력을 서로 다른 기법으로 풀어내면서 자연이 선사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판화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관계자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 관계, 얼굴과 얼굴의 마주함

으로 시작되는 삶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원석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판화 미디어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까지 개인전 15회를 가졌다. 단원미술대전 최우수상, 무등미술대전 최우수상, 대만 국제 판화 비엔날레 입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조선대 미술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박일광 작가는 개인전 7회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광주실크스크린공방 공동대표, 광주판화가협회, 국제판화 교류회, 선목회, 미생회, 황도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갤러리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최명진 기자

박정경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국립남도국악원 제5대 원장 취임

국립남도국악원 제5대 원장으로 박정경(사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이 취임했다.

박 원장은 2008년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국악원 장악과, 국악진흥과, 국악연구실에서 근무했으며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악방송 라디오 '연구의 현장' 진행자로 활동 중이다.

박 원장은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예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국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특성을 강화해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창구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경 원장은 "국악으로 행복한 열린 문화 공간"을 기관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립남도국악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박홍규작 '바람부는 보리밭'

‘판화’ 작품보고, 체험하고

박홍규·채관병 작가 기획초대전...25일부터 은암미술관

목판화,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판화 작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25일부터 8월8일까지 박홍규·채관병 작가 기획초대전 '판화로 다 함께'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목판화, 실크스크린 등 10여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판화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홍규 작가는 오월정신과 동학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다양한 목판화 기법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질감을 보여준다.

작은 단위 이미지들이 중첩돼 큰 이미지를 이루는 민중 판화를 통해 자신이 투영하는 깊은 내면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채관병 작가는 한국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유명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한 그의 작품은 풍경, 인물, 동식물 등을 서정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다. 특히 신작인 '거북이의 꿈'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다음달 2일 오후 1시 박홍규·채관병 작가 실크스크린 에코백 체험이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은암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제4회 호남학산책 일반인 공모전

김형미 씨 '조선을...' 대상 영예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호남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담은 '호남학산책' 제4회 일반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40개 작품 가운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개 작품이 선정돼 수상자에게 이날 시상식이 이뤄졌다.

대상은 '조선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김형미 씨가 받았다. 이방인 하멜이 체류했

던 강진 전라병영성지를 찾아가 역사의 풍경이 된 먼 곳의 시간을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광주의 기억공간과 문화'로 억압에 저항하는 울골은 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을 기억하고 기리고 있는 광주의 기념물, 기억 공간에 대한 단상을 담은 심영의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소천재(紹泉齋), 그 빛과 그림자'로, 폐허가 된 일제강점기 권투 선수인 서정권의 소천재를 알리고 온



제4회 호남학산책 일반인 공모전 시상식

당한 복원을 주장한 박희연 씨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순천 와은 해변에서 인문학을 현상하다'로 자신만의 가치가 숨쉬는 장소인 와은 해변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박성근 씨가 받았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참

가지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호남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 기쁘다"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호남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Advertisement for Seogwangju Nonghyup (서광주농협) featuring a modern building, NH Bank, and various services like zgm pay cards and insuran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branch locations.